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 불어넣는다

전주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경품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 진행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여 지역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편의가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전주시 각 전통시장별로 준비한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추석 명절 시민들의 잠바구니 채감물가를 내리고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추석맞이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신중양시장과 모래내시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 행사는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

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로, 신중양시장과 모래내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거나, 신중양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한 고객들은 당일 구매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행사부스에서 신청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신중양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시장 상인회와 함께 마련한 전통시장 이용 고객을 위한 추석맞이 할인행사와 이벤트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서부시장에서는 오는 13일까지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더하기 위한 소규모 버스킹 공연과 함께 3만 원 이상 구매고객 대상 경품 증정 행

사가 진행되고, 남부시장은 오는 14일까지 구매 금액의 10%를 1인 최대 1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행사와 명절 선물세트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또,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남부시장 야시장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연장운영해 연휴 기간 전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상점가 주차장 총 6개소 716면을 무료로 개방기로 했다.

무료 개방되는 주차장은 △남부시장 주변주차장(260면) △신중양시장 주차장(146면) 이상 13~18일) △중양상가 주차장(87면)(14~18일) △모래내시장(97면) △풍남문상점가(44면) △서부

시장상점가 주차장(82면)(15~18일)이다.

이외도 시는 오는 13일까지 전 부서 및 유관 단체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전개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가스·소방 설비 등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중성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이 명절을 더 즐겁고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행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온 가족 함께 즐기는 한가위

전주역사박물관, 14~18일 추석 맞이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

전주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4~18일까지 5일간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전주시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 가족 함께 즐기는 한가위'를 주제로 한가위 한미당 행사를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유기즈! 인터뮤지엄 △강강술래 바람개비 및 달토끼 드림캐처 만들기 체험 △전통놀이 체험 △가족영화관 등으로, 추석을 맞아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오는 18일에는 단청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공예와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연단조문을 활용한 전통 팽이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 온(溫): 오색 빛의 단청'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유기즈! 인터뮤지엄' 프로그램은 박물관 전시를 둘러보며 가로세로퀴즈를 풀고 다양한 미션

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활동지를 완성한 관람객에게(매일 선착순 250명)는 역사박물관 캐리커가 들어간 상품이 선물로 증정된다.

이와 함께 기획전시실에서는 전주역사박물관과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협회의, (재)정목미술관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전북의 불꽃'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성욱 전주시 전주박물관장은 "추석 연휴 기간 박물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를 통해 온 가족이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박물관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더욱 친근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역사박물관 한가위 한미당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참여 방법은 박물관 누리집(jonju.go.kr/jonjumuse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광주 전방·일신방직 부지 현장 방문

부지개발 관련 감정평가·공공기여량 산정 과정 등 청취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12일 전주 관광 타워 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주 전방·일신방직 부지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회장 등 10명의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및 전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다.

또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감정평가 및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사전협상 과정 및 노력,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및

정책 방안, 지구단위계획 내 토지 계획 및 개발 방향 등 의견을 교환하고 효율적인 전주 관광 타워 개발을 위한 논의를 했다.

박형배 도시건설위원회장은 "전주 관광 타워 복합 개발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돼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가 12일 전주 관광 타워 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주 전방·일신방직 부지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 덕진구 소재 기관·단체·협회·기업체·사업체 대표로 구성된 덕진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활동에 나섰다.

전주시설공단, 추석 맞아 소외 이웃 위한 성금품 전달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눴다.

공단 안전팀과 감사팀 팀원 8명은 12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생필품과 간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물품은 양 팀 팀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했다.

체육공원운영부는 독거노인 10세대에 쌀과 화장지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주차운영부도 탄소중립세상만들기 프로젝트로 마련한 수익과 부서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생필품을 구입해



2부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복지환경부는 성금을 모금해서 조촌동 주민자치센터에 생필품을, 체육공원운영부도 부서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저소득 계층에 전달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 풍남동 발전협의회,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 기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발전협의회(회장 김길)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달라며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풍남동 주민센터(동장 허민석)에 전달했다.

풍남동 발전협의회는 매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부와 활동을 통해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을 준비하였다.

김길 풍남동 발전협의회장은 "추석 명절에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



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덕진회, 성금 100만원 기부·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여

전주시 덕진구 소재 기관·단체·협회·기업체·사업체 대표로 구성된 덕진회(회장 채창수)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활동에 나섰다.

덕진회는 12일 관내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상적으로 친숙한 '리면'을 매개로, 소통과 복지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립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전주함께라면' 사업 운영에 소중한 지원으로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어서 덕진회는 모래내시장을 방문하여 덕진구 청원들과 함께 추석 장보

기 행사에 참여했다. 추석 제수용품과 농산물 등을 구매하며 체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일조했다.

채창수 덕진회 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된 이웃을 위한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장보기 행사에 함께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따뜻한 덕진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번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번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